33 재빨리 도망칠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

• 파라노이아(parsnoia)는 편집증을, 스키조프레니아(schizophrenia)는 분열증을 말한다. 파라노이아는 아이덴티티에 편집한다.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집착하고 이 정체성을 더욱 세밀한 부분까지 파고들어 새로운 정합적 특질을 획득하는데 매진한다. 인생에서는 종종 우발적인 기회나 변화가 나타나곤 하는데, 그때마다 기회와 변화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축적해 온 과거의 아이덴티티와 꼭 들어맞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렇기에 파라노이아형 인간은 타자가 보기에 '일관성 있고 알기 쉬운 인격과 인생'이다.

• 스키조프레니아형 인간은 고정적인 아이덴티티에 속박되지 않는다. 자신의 미의식이나 직감이 움직이는 대로 자유롭게 운동하고 그 시점에서의 판단, 행동, 발언과 과거의 아이덴티티나 자기 이미지와의 정합성에는 집착하지 않는다. 우발적으로 찾아온 변화와 기회는 그때그때 직감이나 후각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뿐, 과거에 축적한 아이덴티티와의 정합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 우리 사회는 아직 한곳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파라노이아형을 예찬하고, 계속해서 싫증을 내고 변화를 거듭해 가는 스키조프레니아형을 비하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직업관은 전형적인 스키조프레니아형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파라노이아 예찬, 스키조프레니아 비하'라는 직업관이 사회의 혁신을 정체시키는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이 사회적인 가치관이 스키조프레니아형의 전략을 채택하려고 할 때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도망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세상의 평판에 신경을 쓰느라 침몰해 가는 배 위에서 우물쭈물하다가는 그야말로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다.

• 파라노이아와 스키조프레니아를 대비시켜 보면, 후자는 전자보다 경박하고 나약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현재 세계에서는 용기와 강인함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파라노이아 유형을 지향하고, 용기와 강인함을 지닌 사람만이 스키조프레니아 유형의 인생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다.